

국어(한문 포함)

문 1.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가 들어 있는 것은?

- ① 이파리, 딱다구리, 뼈죽이
- ② 애꾸눈이, 오뚝이, 싸라기
- ③ 절뚝발이, 날라리, 지푸라기
- ④ 부스러기, 절름발이, 두드러기

문 2. 밑줄 친 외래어 가운데 표기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결혼식 피로연 장소는 ○○뷔페 2층입니다.
- ② 신혼여행은 지중해 근처의 티어키로 갈 예정이다.
- ③ 요즘은 남자들도 파마를 많이 하는 편이다.
- ④ 시원한 밀크셰이크 한 잔 마시고 싶다.

문 3.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과거에 한 월간잡지가 여성 모델이 정치인과 사귀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기자도 손해배상을 하고 잡지는 폐간된 경우가 있었다. 일부는 추측 기사이고 일부는 사실도 있었지만, 사실이든 허위든 관계없이 남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였기에 그 책임을 진 것이다.
- (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은 자기 인권을 내세워 남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 통상 대중스타나 유명인들의 사생활은 일부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공개성 속에서 상품화 되므로 비교적 보호 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그들도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 (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인권이라는 말은 강물처럼 넘쳐 흐른다. 과거에는 인권을 말하면 불잡혀 가고 감옥에도 가곤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인권을 스스럼없이 주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권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복과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호된다는 것이다.
- (라) 그런데 남의 명예를 훼손하여도 손해배상을 해 주면 그로써 충분하고, 자기 잘못을 사죄하는 광고를 신문에 강제로 신게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남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사죄 광고를 신게 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가혹한 방법이라 하여 위헌으로 선고했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나) - (가) - (다) - (라)
- ③ (다) - (나) - (가) - (라)
- ④ (다) - (나) - (라) - (가)

문 4. 한자성어와 속담이 알맞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뛰다.
- ③ 연목구어(緣木求魚) - 김치국부터 마신다.
- ④ 아전인수(我田引水) - 제 눈에 물 대기

문 5. 문장의 구성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지만 돌이켜보니 지금의 내 모습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 ② 나는 노래를 못 불러서 과외를 받으러 다녔는데, 나에게 노래를 지도해 주신 분은 교회의 집사님이셨다.
- ③ 유족들의 이 같은 결정에는 추가 희생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 ④ 홍길동 감독은 선수 시절 풍부한 경험과 함께 충실한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문 6. 표준 발음을 올바르게 표기한 것은?

- ① 넓죽하다[널쭈카다]
- ② 얹지[얹찌]
- ③ 훑지[훑찌]
- ④ 맑고[말꼬]

문 7.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한국은 매우 작고 아주 먼 나라이지만, 언어학자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다. 하나는 중국에서 발명된 인쇄술이 최초로 실질적으로 이용된 것이 13세기 한국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한글’이라고 불리는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를 15세기에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점이다.

..... (중략)

한글은 의문의 여지없이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산물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한글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점에서 그 유례가 없다. 무엇보다도 한글은 발성 기관의 소리 내는 모습을 따라 체계적으로 창제된 과학적인 문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자 자체가 소리의 특질을 반영하고 있다.

— 최경봉 외, ‘한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

- ① 한글은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이다.
- ② 한국에서 13세기에 최초로 실질적으로 인쇄술이 이용되었다.
- ③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산물 중의 하나이다.
- ④ 한국은 작고 아주 먼 나라이지만 인쇄술이 최초로 발명된 나라이다.

문 8. 로마자 표기법에서 붙임표(-)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음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예: Se-un).
- ② 사람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예: Yong-ha).
- ③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붙임표(-)를 넣어 쓴다(예: Songni-san).
- ④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넣지만(예: Yangju-gun) ‘시, 군, 읍’의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예: Yangju).

문 9. 다음 글의 중심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역사학자와 교사 20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과정개발 추진 위원회’(역사추진위)가 어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초·중·고 역사교육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게 정부 공식기구인 역사추진위의 역할이다. 여기서 내놓는 방안이 8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새 역사 교육과정의 근간이 된다. 홀대받는 역사교육을 살리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역사추진위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어제 공청회에선 한국사 필수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사회과목군에 포함돼 있는 역사를 독립과목으로 하거나 수능과 공직자 시험에 한국사를 필수로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고교 교육과정 자체가 선택형인 데다 수능 탐구과목이 2개로 줄어든 상황에서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고교 3년 동안 한국사를 전혀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게 해 고교 역사교육을 고사(枯死)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건 교육 내용과 방법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추진위가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을 바로 세워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긍심,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교육 방법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교실을 떠나 현장인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바로 역사교육이다. 역사교육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다. 역사추진위와 정부는 이번에만말로 역사교육의 틀을 제대로 짜는 데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 ②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사 교과서의 집필 및 검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 ③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선이 중요하다.
- ④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자, 교사,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문 1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단어가 나타내는 뜻은?

모자가 강을 건너 노루목에 당도했을 때는 툭툭 쏘는 겨울 햇살이 질척하게 눈을 녹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 문순태, ‘타오르는 강’ —

- ① 사방이 탁 트인 넓은 들판
- ② 오솔길을 통하여 들어가는 동네
- ③ 노루를 기르는 목장이 있는 동네
- ④ 넓은 들에서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좁은 지역

문 11. 한자어의 독음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龜裂: 균열
- ② 否運: 불운
- ③ 嗚咽: 오열
- ④ 拓本: 탁본

문 12.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 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 ② 저희들에게 축복과 격려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③ 쓰레기는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 ④ 에너지 절약 및 근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써주십시오.

문 13. 괄호 안에 해당되는 제목과 지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를 지어주세요.” (㉡)는 이내 왕의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왕은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왕사(王師)로 봉하매 (㉢)는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는 이러하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스런 어머니시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시니,
백성이 그 은혜를 알리.
꾸물거리면서 사는 물생(物生)들에게, 이를 먹여 다스리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나라 안이 유지됨을 알리.
(후구)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는 태평하시리이다.

— ‘삼국유사’ 중에서 —

- | | ㉠ | ㉡ |
|---|--------------|----------|
| ① | 안민가(安民歌) | 충담사(忠談師) |
| ② | 찬기과랑가(讚耆婆郎歌) | 충담사(忠談師) |
| ③ | 제망매가(祭亡妹歌) | 월명사(月明師) |
| ④ | 안민가(安民歌) | 월명사(月明師) |

문 14. 어문 규범에 모두 맞게 표기된 문장은?

- ① 여기 있는 딸기 통털어서 얼마예요?
- ②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 이젠 집에 갈께.
- ③ 그는 성대모사 하나로 내노라하는 인기인이 되었다.
- ④ 그렇게 글씨를 피발개발 써 놓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문 15. 밑줄 친 부분을 잘못 순화한 것은?

- ① 이번 호의 논문 심사결과표를 모든 이사분들께 우편물로 송달했습니다. (보냈습니다)
- ②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들은 선거가 끝나고 모두 철회되었다. (취하)
- ③ 아무래도 이번 조처는 부속기관들을 통폐합하려는 당국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순서를)
- ④ 이 건물 출입문에는 자동 시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잠금장치)

